

# 광주시농협쌀조합 시설현대화…고품질 쌀 공급

40억 들여 도정시설 완료…올 매출 150억 목표

‘빛찬들 햇쌀’·‘무등산쌀’ 이어 ‘진상미’ 연말 출시

광주시농협쌀조합이 시설현대화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광주시농협쌀조합(광주통합RPC, 미곡처리장)에 따르면 최근 4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새 도정시설을 설치하고, 한층 더 높은 품질의 쌀 공급에 나섰다.

광주시농협쌀조합은 광주지역 농민이 생산한 쌀을 전량 수매해 농협 및 대형마트에 광주쌀을 공급하는 지역 최고의 쌀 도정 법인이다.

새 도정시설로, 광주시농협쌀조합은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로 발생한 미질저하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며 올 1월에는 GAP(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광주지역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돼 현재까지 85개 초·중·고 학교에 300여t의 친환경 쌀을 공급했다.

더불어 수매품종 단일화, 품종별 별도보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그동

안 저가쌀로만 인식됐던 광주쌀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까지 12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올해 매출액 150억원의 목표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진열 광주통합RPC 장장은 “시설현대화로 광주지역 농민에게는 소득보장을,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지역 쌀인 ‘빛찬들 햇쌀’과 ‘무등산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고품질 쌀 ‘진상미’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광주시농협쌀조합은 광주지역 모든 농협이 공동출



광주시농협쌀조합이 운영중인 광주시 남구 대촌동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

자한 전국 최대 규모의 통합RPC 법인으로, 대촌농협과 본랑농협에서 각자 운영하던 2개의 RPC를 지역 14개

농협이 공동으로 인수·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협 전남본부는 10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정보센터앞에서 추석을 맞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지역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추석 물가 배추·상추 오르고 오이·애호박 내려

배추 36%·청상추 50%↑

오이 17%·애호박 20%↓

추석을 앞두고 최근 고온으로 생육부진을 보인 배추·상추 등의 가격은 오르고 경기침체로 소비가 준 오이·애호박 등의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가 밝힌 광주·

전남 농산물 가격정보 소식지 ‘얼마요’에 따르면 배추 1포기에 5500원으로 1개월 전의 4040원보다 36.1% 올랐다.

또 청상추가 100g에 900원으로 1개월 전(600원)과 비교해 50% 오른 것을 비롯해 방울토마토(1kg 6000원) 20%, 건멸치(100g 2000원) 25.0%, 끓고추(100g 700원) 16.7%, 쇠고기(100g 4500원) 4.7%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고온으로 생육부진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대체 수요 또는 추석 선물용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최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요식업소 매출부진,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10개월 전(600원)과 비교해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 차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0원) -16.7%, 수박(1개 2만원) -6.5% 등의 하락률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사의 한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음식재료와 선물용 등으로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채소류와 과일류는 최근 출하가 원활하고 올해 태풍피해도 없어 공급물량 증가로 약보합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버섯종균 불법 유통

### 사전에 뿌리 뽑는다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서영범)은 10일 이달부터 불량·불법 버섯종균에 대한 정기 유통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조사기간에 버섯종균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및 경로를 추적,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이번에 중점 조사할 항목으로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미필종자 취급 여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균의 판매·보급 여부 등이 있다.

특히 불법종균을 생산·판매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역추적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저축은행 14년만에 절반 줄어 91개사

### 정부·정책자금·보험 취급 허용

온갖 비리로 얼룩진 저축은행 수가 14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 금융감독당국이 급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추가 부실 여지를 없애는 한편 정책자금이나 보험·펀드 취급 등을 허용해 새로운 먹을거리로要做 전망이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서민금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개선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지난 3월에 91개까지 절반으로 줄었다. 1983년에 249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엿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정보 공개는 대부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부업의 경우 최근 대부자가 자신의 금융관련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는 중이다. 그동안 대부업 고객은 본인의 대출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다.

투명 경영을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표준화된 대출심사보다는 ‘발로 뛰는 영업’으로 관계형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역 기반이나 현지 주민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서민 금융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먹거리들을 주는 대신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하이트진로, 목포사랑행복기금 720만원 기탁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지난 5월 ‘목포사랑행복기금 1억원조성’ 협약식 체결 후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 첫 적립금 720만원을 10일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하이트진로(주)목포지점은 “하이트진로(주)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행복과 배려가 기쁨으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 대한민국 차 부문

## 전통식품 명인전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명인의 차만 납품  
명절의 고급한 선물은 명인이 만든 명차를 권합니다.

http://www.hankooktea.co.kr